

본이 되는 삶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세상 것이 탐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 진리로 무장하며, 법사에 성실히 행하면 신앙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 싱할라어 '만민뉴스' 발간

스리랑카 싱할라어 '만민뉴스' 첫 호 발간 및 페루 전 여당 총재 주일예배 참석 소식 등 국내외 뉴스

북유럽의 아름다운 고도(古都) 에스토니아

중세와 21세기가 공존하는 곳, 수백 년간 이민족의 지배와 고난 속에서도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지킨 나라, EU 회원국 에스토니아를 찾아간다.

'생명의 씨' 설교를 통해 응답과 축복이 넘쳐요

창세기 강해 중 '생명의 씨'를 통해 영육 간에 축복받은 홍성숙 권사와 권능의 기도로 결혼 5년 만에 잉태한 싱가포르 알렉스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453호 2010년 10월 2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해요”

만민 꿈나무들, 2010 아동주일학교 헌신예배 드려



'2010 아동주일학교 헌신예배'에서 헌신자 대표들이 본당 단 위에서 특송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맑고 깨끗한 어린이들의 찬양과 말씀을 경청하는 진지한 모습은 함께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아동주일학교(교장 장성식 목사)가 지난 10월 17일, 오후 3시 주일 저녁예배 시 본당에서 헌신예배를 드렸다.

헌신자 특송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고전 15:10)이라는 제목으로 "독생자를 주시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 은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혹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주님 은혜, 진리를 바로 알려 주며 말씀과 권능으로 믿음을 심어 주는 목자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교했다. 올망졸망한 아동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본당 맨 앞부터 자리하여 두 눈을 반짝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경청했다.

이 목사는 끝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으며, 학부모와 교사들에게는 "아이들 스스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여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초등6학년 장은영 어린이의 '감사의 글' 낭독 후, 어린이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신예물을 교회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었다.

교사연합회 회장 문순미 집사는 "이번 아동주일학교 헌신예배 예물은 당회장님의 해

외 성회를 앞두고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데, 자기 용돈을 1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서 헌물을 준비한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했다. 초등3학년 이찬영 어린이는 "부모님께 받은 용돈이나 명절에 친척 어른들이 주신 돈을 모아 해마다 헌신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다"며 "당회장님과 부모님과 새 예루살렘에 꼭 함께 가는 것이 기도제목"이라고 했다.

또한 이날 사회를 본 고사아(13세) 어린이는 "성당에 다니다가 몇 해 전 처음 부모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좀 낯설었지만, 친구들이 참 착하다는 걸 느꼈고, 토요일 성령충만기도회에 참석하여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며 "이번 헌신예배 때 당회장님 말씀 듣고 난 후 나도 빨리 변화되어 꼭 새 예루살렘 가야겠다고 다짐했으며, 요즘 2회 연속 특별다녀올절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예능부 총책임임을 맡은 김성자 집사는 "우리 예능부 어린이들 중에는 당회장님 기도로 질병을 치료받은 아이들이 여럿 있다"며 "멀리 지성전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헌신예배 특송 연습에 시간 맞춰 오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다"고 했다.

우리 교회 아동주일학교는 유아부(4~5세), 유치부(6~7세), 초등1, 초등2, 초등3, 초등4, 초등5, 초등6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사들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가르침대로 오직 사랑과 기도로써 위로부터 지혜를 받아 진리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 교회를 한눈에... '만민홍보비전' 오픈

'만민홍보비전' 오픈식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5일 본당 로비에서 있었다. '만민홍보비전'은 교회를 홍보하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으로 제작됐다.

대형 LCD스크린 초기화면에 뜬 만민의 역사, 해외성회, 만민뉴스, 만민매거진, WCDN, 우림북, 기사와 표적, 무안단물 등의 카테고리를 손으로 누르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교회에 처음 전도되어 온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매체가 될 것이다.

인도 선교사 파송식



파송식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운데)와 인도 선교사들과 함께 기념 촬영한 퍼시얼 헬렌 라자두라이 전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지난 10월 17일 주일 저녁예배 시, 인구 대국 인도에 네 번째 만민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날 파송된 퍼시얼 헬렌 라자두라이 전도사는 마두라이 만민교회 담임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와 GCN 방송 프로그램을 타밀어로 번역하고 있다. 향후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행 19:11~12)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도 전역에 전파할 계획이다.

이날 이재록 목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항상 불같이 기도할 것과 권능의 종이 되어 인도 12억의 영혼을 깨울 것"을 당부한 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었다.